

민주 공천 '친노·시민사회' 대거 도전

대표경력에 '노무현' 131개, '김대중' 29개, '박원순' 26개

광산을 이용섭·광양 우윤근 '나홀로' 신청

민주통합당이 4·11 총선 공천 신청을 마감한 결과 친노(친 노무현) 인사와 시민사회 인사들이 대거 등장한 점이 눈에 띈다. 현역의원 중에서는 5명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2명이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다. 비례대표는 15명 중 8명이 불출마 입장으로 알려지며 전체 89명의 의원 중 15명 가량이 공천신청 과정에서 교체됐다.

▷대표 경력 '친노-DJ-박원순' = 공천 신청 현황을 보면 친노(親盧)가 당의 대세로 떠올랐다. 총 713명 후보의 대표경력 2개 중 '노무현' 내지 '참여정부' 직함이 들어간 사례가 131개로 가장 많았다. 친노 인사들은 지난 2008년 18대 총선 때만 해도 이명박 정부로의 정권교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세력으로 낙인 찍혔지만, 이번

총선을 앞두고 가장 매력있는 경력에 포함될 만큼 각광을 받고 있다. 대표 경력에 여론조사 때 후보를 소개하는 말로 사용되기 때문에 후보의 얼굴이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들어간 경력은 29개로 2위였다. 3위는 '박원순' 관련 경력이 26개나 돼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시민사회의 달라진 위상을 반영했다. 다음으로는 민주당 대표이던 손학규 전 대표(8개), 현 민주당의 선정구 안명숙 대표(7개),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김두관 경남지사(5개), '민주화의 대부' 고

정환(故) 김근태 상임고문(4개) 순이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이 공천심사를 위한 여론조사 때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름이 포함된 경력은 후보소개용 경

력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해 박 시장 관련 경력을 사용한 후보자들이 난감해 하고 있다.

▷친노 그룹·시민사회 인사 대거 출전 = 참여정부의 친노 인사들도 대거 공천경쟁에 뛰어들었다. 야권의 대선 주자군인 문재인 상임고문이 출마한 부산의 경우 문성근 국민의 명령 대표, 박재호 전 청와대 정부비서관, 전 재수 전 청와대 제2부속실장, 최인호 전 청와대 비서관, 김인회 전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 등이 출마표를 던졌다. 참여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인사 들만 해도 10명 가량이다. 청와대 수석비서관 중에서는 유인태 전 정무수석, 이해성 전 홍보수석, 박남춘 전 인사수석, 전해철 전 민정수석, 윤승용 전 홍보수석 등이 대표적이다. 노무

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인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사사업본부장은 노 전 대통령의 고향인 김해 을 공천을 신청했다. 민주통합당 출마 때 합류한 시민통합당 출신 인사들도 주목받고 있다. 시민사회 출신으로는 이화영 전 YM-CA 사무총장이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지역구는 지도부 결정에 맡긴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웅선 전 시민사회연대회의 공동대표, 남요원 전 한국민예총 사무총장, 유문준 전 한국매니페스트본부 사무총장도 시민사회 출신이다.

▷나홀로 출마 = 민주통합당의 4·11 총선 공천 마감 결과 지역구에서 나 홀로 출마도 눈에 띈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각각 1곳이 한 명씩 공천 신청을 했다. 광주에서는 광산 을의 이용섭 의원이 나 홀로 출마했고, 전남에서는 광양의 우윤근 의원만이 공천 신청을 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사실상 공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군비행장 이전 특별법 소위 통과

16일 본회의 처리

광주 군공항을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군용비행장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13일 국방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발의한 민주통합당 김동철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4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역 주민들이 전투

기 광음으로 인한 '집단 노이로제'에 시달려 왔던 것을 생각하면, 특별법 통과를 만시지탄이지만 크게 환영하고 기뻐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특별법안은 관련 법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된 특별법안은 기초단체장이 국방부장관에 군용비행장 이전을 건의하면 국방부장관이 이 법안을 발의한 민주통합당 김동철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4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역 주민들이 전투

를 했다.

이전 후보지에서는 주민투표를 실시한 뒤 그 결과 등을 참조해 이전부지를 최종 선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며, 이전사업은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안은 14일 국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의결 절차를 밟은 뒤 사실상 18대 국회 마지막인 16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대통령 직속 기구 장애인위원회 설치

민주, 7대 공약 발표

민주통합당이 '장애인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상설기구로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한명숙 대표는 13일 장애인종합지원센터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단체 임직원과 간담회를 갖고 장애인위원회 설치와 장애인연금 현실화 등 7대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다.

국무총리 산하의 현행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비상설회의체로서 2000~2009년 10년간 6회의 출석회의와 1회의 서면회의만 개최하며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때문에 민주당은 대통령 직속의 상설기구로 만들 경우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장애인정책을 일관성 있게 심의·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또 장애인연금 대상을 현재 '소득하위 56%'인 중증장애인에서 2017년까지 '소득하위 80%'인 중증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연금액을 현재 월 15만4000원에서 2017년까지 39만8000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장애인연금 현실화' 방안도 마련했다.

나아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3899대(보청 버스의 12%)인 저상 버스를 2017년까지 1만6000대(50%)로 확대키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전남도는 13일 지역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전문기관으로 전남발전연구원을 선정해 지정서를 교부했다. 배용태 행정부지사(왼쪽 두 번째)가 직무실에서 이관철 전남발전연구원장(왼쪽 세 번째)에게 전남사회서비스 지원단 지정서를 전달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5·18 공법단체 법률안 외면 민주당 의원 묘지 참배 저지"

민주유공자회 추진위

5·18 민주유공자회(공법단체) 설립 추진위원회가 13일 "5·18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의 국립 5·18 묘지 묘 참배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5·18추진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해 말 국회의원 27명의 서명으로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민주통합당의 무성의한 태도 때문에 유공자의 숙원인 법률안이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들은 법안 발의 과정에서도 5·18단체 내부 문제를 핑계로 법안 발의를 지연시키더니 또다시 서명하지 않은 이유로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한명숙 대표는 우리가 보낸 면담요청 공

문에 대해 답변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주통합당이 5·18민주화운동의 가치를 계승하겠다고 법률안으로 이용하는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의 국립 5·18 묘지 묘 참배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5·18추진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해 말 국회의원 27명의 서명으로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민주통합당의 무성의한 태도 때문에 유공자의 숙원인 법률안이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편 5·18유족회·구속부상자회·구속자회 등 5월 3단체는 3년 전 통합추진위를 구성하고 통합을 선언했으나 단체 간 이해관계로 대립하면서 구속부상자회가 독자적으로 공추위를 구성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민주통합당이 4·11 총선의 전략적 요충지인 부산·울산·경남(PK)의 승부처에서 새누리당 후보를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고무된 반응을 보였다.

13일자 중앙일보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부산 사상구의 문재인 당 상임고문과 부산 북·강서구의 문성근 당 최고위원, 경남 김해읍의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사사업본부장이 새누리당 후보를 6.9~9.4%포인트

민주, PK 여론조사 선전에 고무

문재인·문성근·김경수, 새누리 후보에 앞서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은 오차범위 안팎이긴 하지만 거대한 장벽으로만 여겨졌던 PK에서 해볼 만하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보고 반색하고 있다.

중앙당 관계자는 "지역경제의 몰락, PK 소외감에다 이명박정부에서 추진한 국책사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가 민주당에 기회를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기뻐하기엔 아직은 이르다며 낙관론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더 우세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특히 여론조사 상 20~30%에 달하는 무응답층의 상당수는 새누리당 지지층일 가능성이 큰 데다 선거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지역감정을 부추길 수 있어 선거가 끝날 때까지 긴장감을 늦추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선심성 공약 남발 표(票)풀리즘 우려"

경제학 교수·경제 전문가 95명 중단 요구

박주선 "총선 여야공통공약 18대서 통과시키자"

4·11 총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의 '선심성 공약 남발'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학 교수와 경제분야 전문가 등 95명이 13일 여야 정치권에 선심성 공약 남발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 박주선(광

주 동구) 의원은 각 정당이 제시한 19대 총선 공약 중 이전이 없는 공약은 18대 국회 남은 임기 내에 통과시킬 것을 제안해 주목을 받았다.

대학 교수 등 경제분야 전문가 95명은 이날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19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

야가 4·11 국회의원 선거와 12·19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퍼주기식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며 국가 경제를 위해 즉각 멈출 것을 촉구했다.

박주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9대 총선을 앞두고 각당이 내놓는 정책공약에 대해 공약 베끼기, 선심성 공약이란 비판을 제기하는 이유는 그동안 선거 이후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정치권의 잘못이 크

다"라며 "국민과 약속인 공약을 진정으로 지킬 의지가 있다면, 18대 국회 임기 내에 관련법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최근 한나라당이 공약으로 제시한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80%로 상향조정 ▲만 0~5세 전면 무상교육 ▲고교 의무교육 전면 실시 ▲전월세 대물놀이 경감 ▲빈곤아동 수당·주거급여 지급 ▲직불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각종 복지공약은 그동안 민주통합당이 주장했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한나라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 의지가 있다면 관련 법률안들을 조속히 마련해 18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자"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연합뉴스

농성동 리더스하이 주택전시관

매매

사업명	(주)해주주택전시관 및 사옥신축공사		
사업장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45-1번지		
대지면적	2,411.20㎡ (729.39평)		
용도지역	일반미관지구, 최고고도지구, 준주거지역		
건폐율	59.53%(법정: 60%)	준적용율	478.73%(법정: 480%)
규모	지하0층 지상9층	최고높이	55.50m
건축면적	1,435.47㎡ (434.23평)	건축연면적	11,543.18㎡ (3,491.81평)
주차대수	80대(법정 72대) : 본관 24대, 부설주차장 56대		
승용승강기	17인승(4대), 15인승(1대) 총 5대		
에스캐레이터	상, 하 전용광복 에스캐레이터 시공 : 1층~7층까지 설치		
용도	근린생활시설(금융, 소매점, 일반음식점), 문화회화시설 및 업무시설		

층별	면적	평	층고	용도
1층	1,374.92	415.91	4.8m	근생, 업무시설, 기계실
2층	1,346.28	407.25	7.5m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3층	1,355.08	409.91	7.5m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4층	1,359.78	411.33	7.5m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5층	1,360.28	411.48	3.75m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6층	665.60	198.32	3.75m	업무시설(사무소)
7층	1,375.18	415.99	4.8m	업무시설(사무소)
8층	1,385.18	419.02	4.8m	업무시설(사무소)
9층	1,330.88	402.59	4.5m	업무시설(사무소)
소계	11,543.18	3,491.81		

정부가격(감정가)	14,000,000,000원
매매예정가격	12,000,000,000원
현공정율	약 85% 진행
적용가능용도	예식장, 주택전시관, 업무시설, 컨벤션센터, 일반전시관, 교육장, 학원시설 및 실내 휘트니스센터, 워터파크, 영화관, 극장, 종교집회 시설 병행 등 최대층고 7.5m 이므로 다양한 건축물의 시설, 용도도 도입가능 함

문의처 : 010-3625-6984

漢字·漢文指導師資格 研修生募集

국/가/공/인 한문지도사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생 모집

구분	광주여자대학교 (14기)	광주교육대학교 (제5기)
개강일시	·금요일 오전반: 2012. 3. 9(금) 09:10(교급반) ·오후반: 2012. 3. 9(금) 14:10(초급반) ·토요일 오전반: 2011. 3. 10(토) 09:10(교급반)	·목요일 오전반: 2012. 3. 8(목) 09:10(초급반) ·오후반: 2012. 3. 8(목) 14:10(초급반) ·토요일 오후반: 2012. 3. 9(토) 14:10(특급반)
모집기간	2012. 1. 30(월)~3. 10(토)	2012. 1. 30(월)~3. 10(토)
수업기간	2012. 3. 9(금)~2012. 8. 18(토) (6개월 24주 96시간)	2012. 3. 8(목)~2012. 8. 18(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매주 금·토요일 오전반 09:10-13:00 ·오후반 14:10-18:00	·매주 목·토요일 오전반 09:10-13:00 ·오후반 14:10-18:00
수강료	₩350,000 (예금주:광주여대) ·광주은행: 148-107-307803	₩350,000 (예금주:광주교대) ·우체국: 503557-01-005018
수료후특전	·1, 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방과 후 교육)강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범)취득기회 부여	·1, 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방과 후 교육)강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범)취득기회 부여
원서교부 및 접수처	▶문 의 062)950-3582-4 ▶지도교수 011-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문 의 062)520-4243 ▶지도교수 011-614-4160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e.ac.kr/

국/가/공/인 한문지도사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생 모집

연수일정(2012년 제8기)

- 개강일시 : 2012. 3. 5(월)
기초주강반 9:30, 기초야강반 19:00
심화주강반 9:30
- 개강장소 :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 2012. 1. 6(월) ~ 2012. 3. 2(금)
- 수업기간 : 2012. 3. 5(월) ~ 2012. 6. 18(월) (총 105시간)
- 수강료 : ₩360,000
- 모집인원 : 기초반 : 주간반, 야강반 각 30명
심화반 : 주간반(기초 진급생과 편입생 약간명)
* 기초반 수료 정도의 실력이 인정되는 자는 소정의 실사를 거쳐 편입 가능
- 수업시간 : 매주 월요일, 금요일
- 주간반 09:30~12:30
- 야강반 19:00~21:50
- 수료 후 특전
·1,2단계 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발급 수료증 수여
·2단계 수료시 한문지도사 자격증 2개 동시 취득 기회 부여
① (사)한국국립대학 평생교육원협의회 발급 한문지도사(민간자격)
② 국가공인 기관장 발급 한문지도사(국가공인자격)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 급수 취득 기회 부여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한문학원 개설 가능
·각급학교 방과후학교 강사 추천
- ② 원서교부 및 접수처(토, 일 공휴일 휴무)
·전 화 (062) 530-3873-3876
담당교수 H.P 010-2611-1171, 011-9712-1378
·광주은행: 074-107-004114 (예금주: 전남대 평생교육원)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CHONNAM NATIONAL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CENTER
http://sle.jne.gu.kr